

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관절경적 봉합술과 소절개 봉합술의 비교

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박경진 · 김용민 · 김동수 · 최의성 · 손현철 · 임세혁

목 적

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과 소절개를 이용한 봉합술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

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 6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33예에서는 관절경적 봉합술을, 23예에서는 소절개를 이용한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관절경적 봉합술을 이용한 13예는 제외하였다. 수술 시 평균 연령은 관절경적 봉합술군이 52.6세(44~77세), 소절개를 이용한 봉합술군이 57.5세(40~76세)였다. 파열의 크기는 관절경적 봉합술군에서 소파열이 4예, 중파열이 21예, 대파열이 7예였으며, 소절개를 이용한 봉합술군에서는 각각 0예, 6예, 10예, 광범위 파열은 7예이었다. 평균 추시기간은 관절경적 봉합술군이 8개월(6~36개월), 소절개를 이용한 봉합술군이 11개월(6~25개월)이었다.

결 과

최종 추시시에 관절경적 봉합술군과 소절개를 이용한 봉합술군의 운동 시 동통(VAS)은 평균 1.10과 1.45 ($p>0.05$)이었고, 견관절 운동범위, 근력 및 환자의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다. UCLA 점수는 평균 32.4점, 31.1점($p>0.05$)이었다. 파열의 크기가 클수록 결과는 좋지 않았다. 파열의 크기가 커질수록 소절개로 수술하는 경향이 있었다.

관절경적 봉합술군 중 1예에서 봉합 나사못 고정실패로 관절경적 재봉합술을 시행하였다.

결 론

회전근개 전파열에서 관절경적 봉합술과 소절개를 이용한 봉합술간에 두 군간에 VAS, UCLA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며, 비슷한 임상결과를 보였다. 또한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가 커질수록 결과가 좋지 않았다.

색인 단어: 견관절, 회전근개 파열, 관절경적 봉합술, 소절개 봉합술